데스크시각



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요즘 지역 미술계의 화제는 오는 23일 광양시 옛 광 양역사 부지에 문을 여는 전남도립미술관이다. 수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예향이라지만 지금까지 전남도를 상징 하는 대표 미술관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지역민 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화려한 컬렉션이다. 소치 허련의 '대나무 8폭', 오지호의 '항구', 김환기의 '1-1964' 등 139점의 소장 작품이 그것이다. 이는 신생 미 술관의 텅 빈 수장고를 채우기 위해 전남도가 '한시적으 로' 지원한 예산 59억 원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외국의 유명 미술관들은 우리에겐 늘 부러움의 대상이다. 교과서에나 봤던 세기의 명작 들을 보유하고 있는 컬렉션의 상당수가 기업인이나 개 인 컬렉터들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뉴 욕현대미술관은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 가문의 메세 나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마티스의 '춤' 등을 품에 안았다. 밀레, 마네, 모네, 피사로, 르누아르 등 19~20세기 프랑스 미술의 보고(寶庫)로 불리는 일본 국립서양미술관도 가와사키 조선소 회장 마스가타 고 지로의 컬렉션 370점이 모태가 됐다.

최근 간송 전형필(1906~1962) 선생과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의 컬렉션(이건희 컬렉션)이 국내 문화 계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두 사람은 평생 미술품을 수 집해 온 컬렉터라는 공통점을 지녔지만 결은 조금 다르 다. 간송은 일제강점기 일본에 유출될 뻔한 국보급 문 화재 5000여 점을 수집한 '문화재 지킴이'이고,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 전 회장은 40년간 국내외 미술품을 수 집한 '큰손'이었다.

'상속세 물납제' 당신의 생각은?

이들의 컬렉션이 새삼 '뉴스메이커'가 된 건 다름 아 닌 막대한 상속세 때문이다. '한국의 미'를 지켜 달라는 간송의 뜻을 이어받은 후손들은 '간송 컬렉션' 창고지 기로 살아 왔다. 하지만 2년 전, 전성우 간송미술문화 재단 이사장이 타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간송의 국보급 문화재들을 물려받은 후손들에게 막대한 상속 세가 부과되자 지난해 5월 보물 2점이 경매시장에 나 온 것. 다행히 한 번의 유찰 끝에 이들 보물이 국립중앙 박물관의 품에 안기면서 '문화재 해외 유출'이라는 최 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

간송 전형필과 이건희의 컬렉션

이건희 컬렉션 역시 '문화재 해외 유출'이 우려된다 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그도 그럴 것이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보급 문화재 160여 점을 비 롯해 모네의 '수련', 파카소의 '도라 마르의 초상', 자 코메티의 '거대한 여인Ⅲ' 등 주요 작품 값만 합쳐도 2~ 3조 원에 달하는 '월드 클래스'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이 상속세 11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경매시장에 내놓을 것 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실제로 해외미술계에선 깐깐한 검증을 거쳐 구입한 이건희 컬렉션에 벌써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글로벌 미술 사이트 '아트 넷'(ArtNet)은 지난 5일 '과연 삼성가는 아트딜러로 부터 컬렉션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기획 기사를 내 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근래 문화계를 중심으로 미술품에 대한 '상속 세 물납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미술협회 등 문화계 단체들은 최근 "문화재와 미술품은 한 국가의 과거를 조명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현재의 시대상을 함축 하는 만큼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작년 11월 미 술평론가 정준모(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씨 등

전문가들을 초청,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내는 물납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광재 더불 어 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포함한 문화예술·미술시장 활성화 4법을 대표 발의 했다.

사실 이번 상속세 물납제 공론화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물론 이는 말처럼 쉽거나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미술품의 물납 대상에서부터 가치 평가, 사후 관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일부 기업인이나 자산가들의 미술품을 악용한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으 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만찮다.

그럼에도 문화 선진국들은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 하기 위한 초석으로 삼기 위해 일찍이 이 법을 도입했 다. 영국은 100여 년 전 이 제도를 통해 감히 공공 예산 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소장품들을 확보했고, 수많은 문화재와 미술품의 해외 유출을 막았다. 후발 주자인 프랑스는 1983년 상속세는 물론 재산세와 토지세도 예 술품으로 내는 물납제를 시행했다. 단순한 조세 형평성 의 차원이 아닌, 국민의 예술 향유권을 위해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다.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위한 초석

특히 상속세 물납제는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가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들을 상속세로 대신 받은 후 이들을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광주시립 미술관 등 전국의 국공립미술관에 '돌리게' 되면 쥐꼬 리 예산 때문에 빈약한 수장고가 풍성해질 수 있기 때 문이다. 게다가 지역의 컬렉터들이 수집한 양질의 미 술품을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도 있다.

문화 나들이 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착한 부자'들의 컬렉션으로 거장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봄날'이 왔으 면 좋겠다.

은펜칼럼



고성혁

아내와 함께 미용실에 갔을 때 손님이라곤 우리뿐이 었다. 아내의 머리를 자르고 난 뒤 원장님은 가운을 입은 내 머리에 물을 분사했다. 그이는 젖은 내 머리칼을 이리 저리 뒤섞은 다음 손가락을 빗처럼 벌려 빗겨 주었다. 갑 작스레 어머니의 손길이 생각났다. 왜 아니겠는가. 옷에 코를 묻히고 다니던 어린 시절 어머니는 세수하기 싫어 하는 나를 잡아 앉히고는 목에다 수건을 두른 뒤 손바닥 으로 세숫대야의 물을 떠 얼굴을 죽죽 문지르시곤 했다. 어머니라니. 끝이라고 여겼던 광경 뒤에 보태져 더 큰 그 리움으로 변하는 세월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이는 이내 촉촉이 젖은 머리칼을 자르기 시작했 다. 얼마 후 그분의 손이 뒷머리로 돌아가 멈추더니 머 리칼이 들썩인 다음 무언가 딱딱한 게 닿았다. 궁금해 진 나는 뒷머리를 힐끔거렸다. 아, 빗이… 머리에 가로 로 고정돼 있었다. 그분은 내 마스크 끈에 빗을 끼어 틈 을 만들고 그 틈에 가위를 넣고 머리를 자르는 것이었 다.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번 커트 때 실수로 내 마스크

훌륭한 사람보다 좋은 사람

끈을 자르고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말했던 원장님. 많 은 생각 끝에 그 방법을 생각해 냈을 것이다.

이상하게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집콕이거나, 마스크 를 반드시 쓰고 외출해야만 하는 코로나의 악몽에서 숨 구멍이 트인 기분이랄까. 희망이 시작된 듯한 설렘 같은 것. 모두가 상처를 품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를 쉬 게 하는 귀한 사람들을 떠올렸다. 새벽 배송기사를 위해 현관문에 감사의 쪽지를 써놓은 고객. 자신의 텅 빈 가 게를 나가며 마음 아파하던 손님이 마찬가지로 인적이 없는 옆집 가게의 떡을 사 건네며 힘내라고 말할 때 울 고 말았다는 자영업인. 그리고 가게 앞을 서성이는, 입 성 허름한 형제를 불러 치킨을 주고 돈을 받지 않은 치 킨집 사장님에게 전국에서 '돈쭐'을 내겠다며 주문과 선 물이 폭주했다는 이야기. 형제 중 소년가장 형은 식당 알바를 하다 코로나로 해고된 상태였다. 사장님은 그 뒤 에도 찾아온 일곱 살짜리 동생에게 몇 번이나 치킨을 먹 였다고 한다. 이분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 다. 좋은 사람이 그립고 그리운 시절이다.

능력자들이 이분들을 닮았으면 좋겠다. 머리 말고 가슴으로. 그들 모두 가슴으로 고통을 느끼면 좋겠다.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두고 '사면' 이야기를 꺼내거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부러 논쟁을 만드는 사람들. 자신들은 다른 경우라며 편을 갈라 우기는 아 주 특별한 사람들. 재해로 죽은 아들을 기리며 단식을 하는 엄마에게 문자로 출입금지를 통보한 국회의 처사

같은 슬픈 일들. 우리 곁에 없었으면 좋겠다. 머리가 영 리하면 좋은 대학을 나와 국가고시에 합격하거나 자격 증을 따 사회의 주류가 되기에 십상이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능력주의자로 변한다. 그러나 가슴이 없는 능 력주의자들은 기쁨이나 슬픔을 알지 못한다. 고통이야 말로 그 감정들의 바로미터이니까. 갱도에서, 어선에 서, 윈도 스크린 앞에서 컵라면을 먹어 봐야 생의 찬란 한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빈센트 반 고흐는 그가 좋아하는 화가인 쥘 브르통을 보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프랑스 북부까지 왕복 240km의 길을 걸었다. 단돈 10프랑만으로. 여행에서 돌아온 뒤 그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신의 구두를 그 렸다. '구두'라는 그림이다. 한쪽 목은 꺾인 채 구부러 졌고 다른 쪽은 휘어져 버린 구두. 끈을 품었던 구멍은 뻥 뚫려 있다. 하이데거는 이 낡고 해진 구두를 통해 구 두를 신은 사람의 고통을 이야기한다. 표피보다 내부 의 상처와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 요한 시국이다. 그런 사람이 세상의 중심에 서야 한다. 하위 50%가 부의 1.8%만을 갖는 한국 사회. 100칸 짜리 설국열차라고 한다면 꼬리 두 칸에 하위 50%가 내몰려 있는 형국이다. 능력이 훌륭한 사람보다 마음 이 좋은 사람이 필요한 이유다. 뜬금없이 어머니의 손 길을 떠올린 것도 그런 조바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 질과 종교와 선진의 허영들이 너무도 선명히 보이는 이

코로나의 지난한 대열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기 고



양유수 농협 전남지역본부 축산사업단 차장

돼지는 고구려 시조인 주몽의 탄생 신화에서 돼지우 리에 버려진 주몽을 보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가축이다.

고대 한반도 동쪽 지역에서는 초상이 났을 때 관 위 에 돼지를 올려놓고 죽은 자의 양식으로 삼았고, 고구 려 시대에는 구혼을 할 때 여자 집에 재물보다는 돼지 와 술을 보내 혼인을 성사시켰으며,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사용하는 돼지를 '교시' (郊家)라고 하며 이 를 관리하는 관리까지 따로 둘 정도였다.

이러한 돼지가 고려시대에는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 의 영향으로, 조선시대에는 오랫동안 먹으면 약효가 받지 않고 풍을 통하게 해서 열병·학질·이질 등의 질병 을 가져온다며 기피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때에도

돼지의 '가치소비'가 필요하다

나라나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에는 돼지를 사용했다. 제물로서의 역할이 끝난 돼지 를 이웃과 나눠 먹으면서 정도 함께 나누었다.

고려와 조선에 홀대 받던 돼지는 현대로 들어와서 영 양학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리 식탁과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돼지고기에 함유된 동물성 단백질은 면역력 향상에 좋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또 돼지고기 지방의 녹는점은 33 ~36도로 사람의 체온보다 낮아 대기오염・황사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체내에 축적된 공해물질을 체외로 배출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덕분에 2019년 기준 1인당 돼지고기 연간 소비량은 28.0kg이나 됐다. 이는 200g 1인분 기준으로 140인분에 해당돼 한 사람당 사흘에 한 번씩은 돼지고기를 먹는 셈이다.

이렇게 우리와 뗄 수 없는 돼지가 최근 부위별 소비 불균형에 의한 가격 왜곡 현상이 심해 한돈 농가는 물 론 소비자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다. 돼지고기 도매가 격은 올해 설 성수기에 kg당 3600원대로 생산비인 4200원에 못 미쳤지만, 삼겹살은 1월 평균 가격이 2만 1130원으로 최근 5년 내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소비량이 적은 저지방 부위인 등심 및 앞뒤 다

리살 재고 적체로 인한 손실분을 지속적으로 수요가 뒷 받침되는 삼겹살 등 구이용 부위 판매로 상쇄하기 때문 으로, 도매가격의 하락에도 소비자들은 비싼 삼겹살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대로 소비 불균형이 심해진 다면 양돈농가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도매가격에 돼 지 사육이 힘들어 지고, 소비자들은 삼겹살을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할지도 모른다.

선호도가 낮은 저지방 부위에 대한 다양한 소비 확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다양한 조리법을 개발하고 알리는 홍보 활동이 중요하다. 최근 한 방송매체를 통해 뒷다리살을 이용한 가공제품인 햄이 소개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그리고 철분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은 안 심, 저지방육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등심, 단백질과 비타민B1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좋은 뒷다리살, 다용도 로 조리할 수 있는 앞다리살 등 잘 소비되지 않는 저지 방 부위의 장점을 홍보하며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 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돼지 한 마 리에서 나오는 모든 부위를 귀하게 여기고 맛있게 먹는 가치소비가 이루어진다면, 소비가 안정되어 국민의 건 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먹거리가 될 것이다.

社說

산정지구 투기 의혹 공직자도 연루됐나

공공택지 지정이 발표되기 수개월 이전부 터 이 일대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확 인됐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이용 가 치가 낮은 땅인데도 공유 지분 등의 형태 로 수십 건의 매매가 이뤄진 것이다.

정부가 산정지구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달 24일이다. 한데 국토 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 일대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토 지 거래가 급증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단 한 건도 거래되지 않았던 산정동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 매매만 열 건에 달했 다. 같은 지구 내 장수동에서도 지난해 10~11월 개발제한구역 내 맹지(盲地·도 로와 연결되지 않은 토지)를 포함한 세 건의 토지 매매가 이뤄졌다.

여러 명이 한 개의 필지를 나눠 갖는 공 유 지분 형태의 매매가 이뤄진 곳도 있었 다. 지난해 11월 이뤄진 17건의 산정동 토지 매매 중 아홉 건이 이 같은 '지분 쪼 개기' 방식이었다. 또한 이 일대에는 논에

광주시 광산구 산정지구에 대한 신규 과실수 묘목을 심어 놓은 곳이 많아 투기 나 보상을 노린 행위가 아닌지 의심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산정지구에서 공무 원들의 투기 행위가 있었는지 토지 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조성 계획을 발표하기 1~2주 전에 광주시·광산 구 공직자 16명과 사전 조율을 한 점에 주 목하고 이들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할 계

획이라고 한다.

수년간 매매조차 되지 않고 막상 구매 해도 활용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가 특정 시기에 무더기로 거래됐는데, 이 는 개발 정보의 사전 유출이 없었다면 이 뤄지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 단일 것이다. 게다가 현지 주민들은 이 일 대가 개발된다는 소문이 지난해 10월부 터 퍼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 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나서서 이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 조사 만으로는 한계가 있겠기 때문이다.

아스트라 백신 고령층 접종 시기 앞당겨야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이상 노 세 이상 고령층에서 4주 뒤 60~73%의 감 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 말 시작될 전망이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층 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해 도 안전성・효과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해외에서 AZ백신의 고령 층 효과 논란이 일자 1분기 최우선 접종 대상자에서 요양병원과 시설의 65세 이 상 40만 명가량을 제외했다. 이달 말 미 국에서 나오는 임상 결과를 본 뒤 재검토 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계보건 기구(WHO)와유럽의약품청(EMA)은 최근 AZ백신을 65세 이상 고령층을 포 함한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게다가 AZ백신이 고령층에서 중증 예 방 등의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일레로 영국 잉글랜드 공 중보건국은 이달 초 AZ 백신을 맞은 70 해야 할 것이다.

염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80세 이상 역시 3~4주가 지난 뒤 입원하는 사 례가 80% 줄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AZ백신 고령층 접종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AZ백신으로 요양 병원 등의 고령층 접종을 시작하게 된다. 또 다음 달부터는 65세 이상 일반 국민에 대한 접종도 시작할 계획이다.

65살 이상 고령층 접종이 중요한 이유 는 이들이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는 데 있다. 특히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시 설 노인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접종 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번 주 중 발표 예정인 새로운 사회적 거 리 두기 체계도 백신 접종률을 최대화해 야 효과가 있는 만큼, 당국과 의료기관은 한 치의 시행착오도 없도록 철저히 준비

無等鼓 👀

'미라클 모닝'

대학생인 딸은 요즘 아침 5시30분에 일 어난다. 가벼운 체조와 명상을 하고 카카 오톡 '단톡방' (단체로 대화를 나누는 공 간)에 기상을 알리는 인증샷을 보낸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는 영어 공 부로 하루를 시작한다. '미라클 모닝'을 시작한 이후 생긴 변화로 3주째 이어지고 있는 '루틴'이다.

딸이 속한 단톡방의 참가자는 10명인 데 이들의 공통점은 아침 6시에 미라클 모닝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단톡방 운영 자가 따로 있고 매일 운

영자에게 인증샷을 통 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참가자들은 미라클 모

닝 챌린지 시작 전에 운영자에게 보증금 5만 원씩을 입금했고 각자의 루틴을 지 키지 못할 경우 매일 일정 금액의 벌금 을 차감하기로 했다. 물론 3개월 챌린지 과정을 무사히 마치면 보증금은 돌려받 는다.

2030 젊은이들 사이에 미라클 모닝 열 풍이 불고 있다. 2016년 미국인 할 엘로 드가 쓴 동명의 자기 계발서에서 따온 개 념으로 오전 6시 무렵이나 그보다 더 이 른 시간에 일어나 독서나 운동 등 자기 관 리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지난해부터 유

체 육

튜브를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진 후 참가 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키 워드 검색만 해도 나오는 게시물이 20만 건이 넘는다.

20여 년 전에는 '아침형 인간' 신드롬 이 있었다. 2003년 일본인 의사 사이쇼 히로시가 쓴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아침 형 인간'이란 책이 출간되면서 열풍이 불 었다.

사이쇼는 "인간은 원래 일출과 동시에 일어나 일몰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생활

> 을 해왔는데 문명의 발 달로 야간 활동이 늘면 서 신체 리듬이 깨졌다" 고 주장했다. 아침형 인

간은 자연의 리듬에 맞게 생활하는 사람 이며 아침의 한 시간은 낮의 세 시간과 맞 먹는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당시에는 성 공하려면 생활 습관을 아침형 인간으로 바꾸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미라클 모닝은 아침형 인간과 비슷하지 만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계발이자 자기 돌봄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코로나19로 무기력증에 빠진 젊은 이들이 습관을 고쳐 성취감을 얻으려는 몸부림으로 보여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한 /장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则日報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The Kwangju Ilbo

⟨FA X 222-0195⟩

(FAX 222-0195)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부 220-0661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2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